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張起呂, 1911~95)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지난해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오른 인물로 의사 장기려가 있다. 그는 한국 최초로 간암 절제 수술을 한 외과 의사라고 알려져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그는 가끔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과학상의 대단한 업적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 그는 그의 의학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다 간 박애주의 의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그는 한국전쟁 가운데 북쪽에 아내와 2남 3녀를 남기고 차남만 데리고 남하하여 평생 가족을 그리며 애달프게 살아가 세상을 안타깝게 한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일평생 ‘봉사하는 착한 의사’로 봉직

장기려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아버지인 한학자 장운섭과 어머니인 최윤경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상당한 부잣집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남의 집 마름이었다던 그의 할아버지가 부자를 이룩해 놓았다고 전해진다. 장기려 자신은 그가 400 석지기 ‘벼락부잣집’ 출신이었음을 그리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않았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의 아버지는 1917년에 의성학교를 세웠고, 그는 이 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한 후 1923년에 졸업했다. 졸업과 함께 개성으로 간 그는 당시 유명한 학교였던 송도고등보통학교에 진학, 5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1928년에 졸업했다. 한때 모교인 의성학교 교원으로 일할 것을 고려하기도 했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기로 하고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지원하였다. 이 때에는 가정 사정이 전만 못하여 단순히 학비가 싼 학교를 선택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때 그는 이 학교에 들어가게만 해준다면 의사를 한번도 못보고 죽어 가는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는 전설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 전설처럼 그는 평생을 ‘봉사하는 착한 의사’로 살았다.

그가 의학교를 졸업한 것은 1932년 3월이었고, 그 해 4월 9일 김봉숙과 결혼하였다. 이 때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그의 장인 김하식은 내과 의사였다. 바로 이 장인의 권고에 따라 장기려는 당대의 최고 외과의사였던 백인제 아래서 외과를 공부하게 되었다. 평북 정주 출신의 백인제는 오산학교와 경성의전을 나와 1928년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수를 거치면서 독일 등에서도 연구한 일이 있는 한국 외과의학의 개척자다. 1950년 한국전쟁중에 북으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전에 백병원을 시작하여 그 병원은 지금도 활발하고, 그를 토대로 인제대학교가 생겨나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장기려는 백인제의 조수가 되어 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36년까지 그는 270건의 실험을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쓴 논문 ‘중수염 및 중수염성 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가 1940년 일본 나고야대학에서 통과돼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젊은 외과 의사 장기려는 모교이기도 한 경성의전의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기독교적 봉사를 강조했던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그는 이 시절에도 이미 희생적 봉사정신에 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 시기의 처신 때문에 이광수의 소설 ‘사랑(1938)’의 주인공인 의사 안빈의 실제 모델이라는 설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당대 최고의 명사였던 춘원 이광수는 ‘사랑’이 나올 때쯤에 척추결핵으로 경성의전 부속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고, 6개월 동안 장기려가 그의 주치의였다. 소설의 주인공 안빈의 모델이 그였다는 추측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공 장기려는 이를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로 돌렸다고도 전한다. 자신을 내세우기를 피하는 그의 겸손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김일성 대학에서 근무, 한국전쟁중 남하

경성의전 외과에서 근무했던 그는 1940년부터는 평양 연합기독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병원은 구한말 선교의사로 내한했던 윌리엄 홀을 기념하여 그의 부인이 시작한 기흥병원(The Hall Memorial Hospital)에서 비롯한다. 원래 감리교회의 것이었지만 장로교와 연합했던 까닭에 '연합' 병원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그해 11월에는 원장이던 선교사 앤더슨이 귀국하게 되는 바람에 얼마 동안 원장을 맡은 일도 있다. 그가 유일한 박사 학위 소지자였던 때문이었다. 기독교인으로서 또 의사로서 그는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의학자로서도 알맞은 활동을 벌리던 시기이기도 했다. '조선의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의학도들의 학술 모임에서 논문을 발표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1945년, 해방을 평양에서 맞은 그는 그해 11월부터 평양도립병원의 원장 겸 외과 과장을 맡았다. 그러던 그에게 북쪽을 장악한 정권에서는 김일성대학을 만들고 그를 이 대학의 외과대학 교수로 임명했다. 1947년 1월부터 그는 이 대학의 외과과장 겸 외과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때 그는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전한다. 1948년 그는 북한 과학원에서 수여하는 첫의학박사가 되기도 했다.

장기려는 1950년 12월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남쪽으로 피난했다. 잠시 전쟁의 포화를 피하면 바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총망 중에 둘째 아들은 데리고 남하했으나, 부인과 2남 3녀는 그대로 북에 남겨 둔 채였다. 안타까운 일은 그는 피난의 외중에서 그날 부인과 애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도 데리고 오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가 평생 이를 회한으로 재혼도 하지 않은 채 고독하게 살아갔던 사실은 눈물겨운 일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곧 제3육군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 전쟁의 상처 속에서 영도구의 교회 창고에서 무료병원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그의 평생 의료봉사의 본거지가 되었던 '복음병원'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그는 1976년 6월까지 25년 동안 이 병원의 원장을 맡았는데, 그 사이에도 1970년대까지 서울대, 부산대, 가톨릭대 등 몇 대학 의대의 외과 교수로,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삶을 살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봉직한 복음병원은 뒤에 고신대학교 부속병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곳에는 오늘날 그의 흉상이 세워져 있기도 하다.

'행려병자의 아버지' 이자 '성스러운 산'

그는 1961년 간암에 대한 연구를 인정받아 대한의학회의 학술상을 받은 일이 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상은 부산시민상, 국민훈장, 막사이사이상, 호암상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들은 대개 학술상이기보다는 사회봉사상으로 주어진 것들이다. 그만큼 피난지 부산에서 '행려병자의 아버지'로 시작한 그의 일생은 청십자조합을 시작한 한국 의료보험의 창시자로도 꼽힌다. 언제 누가 지었는지, 그에게는 '성산(聖山)'이란 호가 주어졌다. 기독교 정신에 평생 투철했던 그의 봉사정신은 그야말로 그의 존재를 '성스러운 산' 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었으니, 알맞은 호가 아닐 수 없다.

장기려는 1995년 12월 25일 84세로 세상을 떠났다. 기독교에 독실했던 의사 장기려로서는 기독교의 명절에 세상을 하직한 것도 우연치고는 기억하기 좋은 일이란 생각도 든다. 지난해 그의 기념사업회와 부산의 고신대 등에서는 그의 10주기를 기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복음병원 원장을 하면서 치료를 거의 마친 환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고, 자기의 농사일은 돌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는 밤에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라며 병원 뒷문을 열어 놓은 일도 있다는 얘기로도 유명하다. 농부의 사정을 딱히 여긴 그는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밤에 문을 열어 놓을 테니 살짝 도망치세요." 환자의 도망을 방조했던 의사 장기려는 말년을 그가 봉직했던 복음병원의 10층에 있는 20평 남짓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평생 검소한 삶을 살다간 모습을 여기서도 엿보게 된다.

1985년 9월 그는 정부로부터 북한 방문을 제안받았다. 남북고향 방문단 및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을 오갈 때 그에게 특혜를 주려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내가 평양에 간다면 그곳에서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살 수 있든지, 아니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남쪽에서 살 수 있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면 가겠지만, 이도 저도 아니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이북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이 많은데 자신만이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도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아내에게 전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것은 두고 온 2남 3녀의 자식들을 잘 키워준 것을 감사하면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만남을 기약한다는 내용이었다. ㉮